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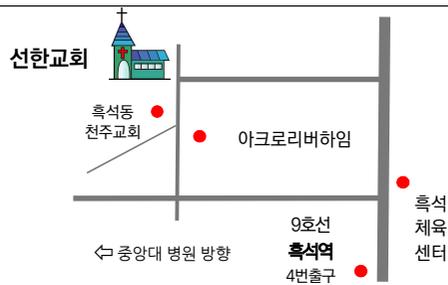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삶의 방식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빌 4:1-7)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금흥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가 3:32-33)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찬 양 과 경 배	453장 (통일찬송가 506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2장 15절 ~ 17절	
설 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요 일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임대원 집사	
	말 씬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시115:14-18)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자랑할데가 없느니라 (롬 3:27-31)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선한교회 찬양축제** 오늘 오후예배 후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 2부예배후 찬양제 리하설을 13:00 ~14:00까지 진행할예정이니, 전 참가팀은 반드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험생기도회** 10월 14일(월)부터 11월 13일(수)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 11월 14일(목)은 수능 당일로 종일기도회로 모입니다.
※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수험생: 이정진, 이찬희, 손주은, 손진강, 양예림, 이서윤, 홍성호, 홍성원
- 제 직 회** 다음 주일(11월 3일)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10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0월 6일	성경지리특강			유신웅 장로		
10월 13일	야 외 예 배			다 함 께		
10월 20일	성경오류논쟁 9강			임춘배 목사		
10월 27일	찬 양 축 제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0/27	10/28	10/29	10/30	10/31	11/01	11/02
	이사야 39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3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한주일이 되기를
주신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한주일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주일이 되기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서

찬송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통 384장)

본문 : 사도행전 4장 13~22절

말씀 :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당 문에 붙였습니다. 사실 루터는 이 반박문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유럽 전역에 거대한 종교개혁의 바람을 불어 일으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개신교(改新敎)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부릅니다. '항의하는 사람들' 혹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의 그릇된 교리와 낡은 권위주의에 저항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지어졌지만, 훗날 개신교인들은 이 뜻을 자랑스럽게 여겨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개신교는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개신교가 세상의 저항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하다가 체포되어 밤새도록 갇혀 있다가 이튿날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 심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는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 다며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분명 말 한마디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8절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며 아주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에 공회원들이 너무 놀라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13~14절) 온갖 거짓과 불의, 위선과 외식으로 얼룩진 예루살렘은 이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16~17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19절)

신앙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보름스로 간 루터는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 앞에서 재판받았습니다. 모두가 만류하는 가운데 재판정에 선 루터는 살기등등한 눈빛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Oh, God, here I stand).”

죽은 자는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없습니다. 저항은 산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저항할 수 없다면 산 것이 아닌 죽어 있거나 죽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살아 있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일 2:15-17)**

서론 하나님과의 사귀를 위해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 (1) [하나님과의 교제 방해]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다.
- (2)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15).
- (3)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16): ①육신의 정욕 ②안목의 정욕 ③이생의 자랑

본론

2. 교훈

- (1)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사귀를 더 사모하자.
- (2) 크고 화려한 겉모습 보다 작고 부족한 내면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자.
- (3)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됨을 기억하자(17).

결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장로
헌금위원	김현석 김희상 박대수	허정미 김정원 김은정
오후예배기도	임대원 집사	백영미 집사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 통일 찬송가 91장)
통독	이사야 39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가 포로가 되는 상황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이다. 므로닥발라 판은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교만에 차서 사자들에게 보물고와 궁중과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 주었다(1-2절). 이사야 선지자는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는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3-7절). 다만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난다(8절).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따라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히스기야의 실수</p> <p>(1) 본장은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제2부 제36-39장의 종결부이며 왕하 20:12-19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함</p> <p>(2) 1-8절: 바벨론 사절단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된 히스기야의 실수(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궁중의 모든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줌)와 남유다 멸망 예언을 기록함</p> <p>(3)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망각해서는 안된다.</p>
핵심 단어	6절. 이르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의 도래를 나타낸다. 즉 일상적인 날의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 임하는 날의 도래를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나 무엇과도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장)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p> <p>한 학생이 랍비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는데, 과연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회개의 시기를 묻는 학생에게 랍비는 “그야 물론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소. 그래야만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뵈 수 있으니 말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 회개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바로 직전에 맞춰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것이오.”</p> <p>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p>
말씀 나누기	레위기 26:40-46
목상포인트	<p>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순종에 기초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해 징계받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나요?(40~41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회개와 내가 평소에 하는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변화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 통일 찬송가 470장)

통독 이사야 43장

본문 내용 본장은 무가치한 종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이다(1-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 세우시는 것은 증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8-13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서도 잘 드러난다(14-21절).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22-28절).

생각해보기

1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고백
 (1) 1-13절: 앞장과는 달리 책망하던 강경한 어조를 바꾸어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조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떠한을 일깨우며 세계만방에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2) 14-21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 놀라운, 그러면서도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에 대해 예언함.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3) 22-28절: 하나님께서 당신께 간구하지도 않고, 제물로 경배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배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배반하였을지라도, 전혀 내세울 만한 의가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사죄와 더불어 구원의 은총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주심
 (4)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

핵심 단어 10절. 믿으며, 확실하게 보증된 신뢰할 만한 것을 지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 통일 찬송가331장)

통독 이사야 40장

본문 내용 본장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기간이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신다. 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라고 한다(1-5절). 아름다운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환영한다(6-11절). 또한 다섯 가지의 수사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분은 도울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웅장하여 열방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12-17절).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에 관하여 말하면서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18-26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27-31절).

생각해보기

1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1) 본장은 제3부 40-66장의 첫 번째 장으로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예언하면서 일차적으로는 개시될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재건 및 여호와와의 통치 회복, 교제 회복 등의 선민의 감격과 환희를 보여 주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말미암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 등의 예언을 줌
 (2) 1-11절: 40-48장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을 선언하는 내용과 회복된 선민의 통치자로 임재하실 여호와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는 선언, 및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과 대조되는 시온의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선민에 대한 그의 확실한 보호에 대해 언급함
 (3) 12-26절: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 선포. 하나님은 어떤 모사나 세상 나라에 비할 바 없는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신 창조주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한낱 생명 없는 금속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과 비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언함
 (4) 27-32절: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의심하는 일과 원망을 버리고 한없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라고 권면함
 (5) 세상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던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핵심 단어 26절.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자이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임을 뜻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님 찾아 오셨네 (찬송가 534장 / 통일 찬송가 324장)
통독	이사야 41장
본문 내용	본장은 열방의 세력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 준다. 하나님에서 열방과 마주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1-4절).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과 바사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나라간의 연맹은 아무 소용 없으리라고 비웃듯이 말한다(5-7절).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이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거룩한 자를 알게 될 것이다(8-20절). 열방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21-29절).
생각해보기	
1	<p>선민에 대한 위로와 구원</p> <p>(1) 1-20절: 장차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열국을 짓밟게 하실 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며 열방이 고레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매어 달리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게 될 것을 증거함. 그러나 열방과 구별되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장중에 보호받고 있으므로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고 지령이 같이 하질 것 없던 선민이 장차 세계 열방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승리의 비전 및 영적 갈증 해소와 낙원의 약속을 기록함</p> <p>(2) 21-29절: 우상의 허무성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비교 제시함. 우상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지 못하며 인생들에게 복이나 화를 내리지 못하는 허무한 존재이며 이를 의뢰하는 자도 허망한 반면 미래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래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고 이를 그대로 성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성과 역사의 주권성이 분명히 입증될 것임</p> <p>(3) 인생의 환난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인생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p>
핵심 단어	13절. 너를 도우리라. '돕다, 지지하다'라는 뜻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는 절대적인 구원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 통일 찬송가 78장)
통독	이사야 42장
본문 내용	본장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택하신 민족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1-4절).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사역을 도우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5-17절).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18-25절).
생각해보기	
1	<p>제1 여호와의 종의 노래</p> <p>(1) 이사야의 전4편의 '여호와의 종' 중 첫 번째 노래임</p> <p>(2) 1-9절: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메시아의 품성에 대해 노래한후, 소경을 보게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셔서 여호와께 찬송드리게 하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함</p> <p>(3) 10-17절: 온 땅 거민들을 향하여 종말론적인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한 후 여호와와 구원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1-9절의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 여기서는 '여호와 자신'</p> <p>(4) 18-25절: 선민으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청종치 아니하다가 결국 불 붙듯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이사야 당시의 우매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기록함</p> <p>(5)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총의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순종으로 그 분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p>
핵심 단어	16절. 굳게. 굳게 하고 평평하게 하며 장애물을 치우는 것, 즉 윤리적으로 굳고 정직한 것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